

현대 아시아 작가 4인전 열린다

프로젝트 안디니, 내달 3일부터 DC서 개최

생동감 있는 미술 문화 교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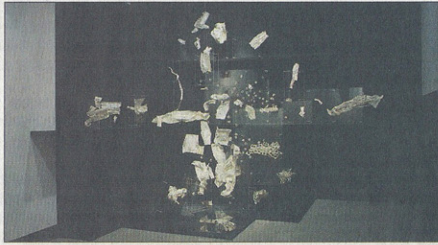
회화와 영상물,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신작으로 구성된 현대 아시아 작가 4인전 위싱턴에서 열린다.

프로젝트 안디니(Project Andini)는 내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DC에 위치한 힐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 '퍼즐링 스페이스(Puzzling Space)'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위싱턴에서 활동중인 젊은 아시아계 여성화가 2명이 공동으로 준비한 기획으로 아시아계의 신·중진 작가를 소개해 준다. 작가들은 "개념"과 "과정"을 중시하는 장소 특장적인 현장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시가 펼쳐지는 장소를 건축·사회·문화라는 맥락으로 그 의미를 심화·확대하는 것 밖에서는 현대미술의 흐름과 그 맥락을 함께 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 안디니의 설립자이며 디렉터인 현정영씨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단선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아시아 여러지역의 작가를 포괄함으로써 DC 지역 아시아 작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또한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새로운 미술 문화 교류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및 아트 워크숍, 강연 등이 마련돼 일반 관객들과의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다. 참가작가



내달 3일부터 위싱턴 DC에서 열리는 현대 아시아 작가 4인전에 참가하는 예릭 자루코, 훔순영, 딘 렐 작기의 작품(위에서부터 시계방향).

는 홍순영(한국), 저크리판 랑기타(태국), 딘 렐(중국), 예릭 자루코(필리핀) 등 4명이다. 오프닝 리셉션은 9월 3일(금) 오후 6시~9시, 작가와의 대화는 10월 1일(일) 오후 6시~9시, 아뜰레상사

트 워크숍은 9월 4일(토) 오후 2시~3시, 청소년을 위한 강연은 9월 5일(토) 3시~30분에 열린다. >문의: 703-507-1164 >주소: Hillery Court, NW, Washington DC 20008 유승림 기자

컨벤션 비즈니스 살아난다

위싱턴 일원의 컨벤션 비즈니스가 살아나니 조심이다.

16일 위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전했던 위싱턴 일원의 컨벤션 업계가 올해 들어 예외 없이 어느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C에 본부를 둔 정부기관이나 단체들과 관련된 전시회 컨벤션 행사가 늘는 것도 관련 업계 회복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 랜덤에 본사를 둔 하그로브 이벤트 회사의 팀 맥길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 열리는 컨벤션 행사의 횟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연간 1000개 이상의 컨벤션 행사 진행을 맡아왔다. 지난 4월 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

위싱턴 일원 정부 행사 늘어

요식·숙박업계에 매출 증가

회담도 이 회사의 작품이었다. 컨퍼런스 매니저먼트 회사인 케이로드 내셔널의 로버트 무어 부사장은 "대기업들의 행사가 위싱턴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며 "지난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잠허우드 행사도 인기되거나 취소되기도 일쑤였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컨퍼런스 행사 기획을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은 1억1800만 달러였다. 이 지역 행사가 늘면서 요식업계 등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입고 있다. 출장객도 전년 같은 기간 위도스 케 이터링의 앤드류 갱스텔 부사장은 "최근 열리는 행사의 경우 음식 가치

수 등은 예전보다 좋았지만 주문하는 인원수는 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음식 예산을 20% 줄었다면 요즘에는 40%정도 줄이면서 정식보다는 뷔페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호텔업계의 경우도 수요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벤트 기획 업체인 미팅 플래너스 인터내셔널 포드맥 지사의 스텔라 노블리 부사장은 "컨벤션 행사가 늘면서 호텔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주최측이 사용하는 예산은 예전 같지 않고, 호텔끼리 고객 유치 경쟁도 뜨겁다"고 말했다.

세디 그로브에 있는 힐튼 가든 인의 마르코 푸엔테스 총지배인은 "고객들에게 가격은 할인했지만 서비스는 가격 이상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문 기자

이차용은 줄이고 고객만족을 높이는 LOAN

용자/재용자

\$0.99% 클로징 프로그램 OK

장민진 Loan Specialist (문의) 571-228-8516

19911 Winnebois Dr. #700
Lanham, MD 20786

새 시공과 따뜻한 건강도우미

전내과·노인과

Tel. 703.468.4462

7002 Evergreen Ct. #A, Annandale, VA 22003

“주택구입 과정 알고 집 사세요”

페어팩스 주택구입 세미나 열려

페어팩스카운티 주택구입 제공하는 첫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세미나가 지난 14일 애난데일에서 열렸다.

위싱턴 한인봉사센터가 분기간 한번씩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버지니아 주택개발국(VDHA)이 제공하는 개인재정과 크레딧, 용자, 부동산, 홈 인스펙션 등 주택 소유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소개됐다. 이 날 세미나엔 존 배(크레딧 및 용자), 제니 김(부동산), 앤디 램(홈 인스펙션), 진희 추(홈 블로거)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도 소개됐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사회봉사자는 “스스로 주택 구입 과정을 알고 집을 사시려는 것과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파라는 것 이외에는 더 가치가 있다”며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 세미나는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의: 703-354-6345 유승림 기자



지난 14일 애난데일 한인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첫 주택 구입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의 내용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인봉사센터 제공]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

위싱턴 한인봉사센터 산하 시니어 아카데미가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애난데일과 센터빌 두 곳에서 수업이 열린다. 애난데일은 파카버니아 한인장로교회에서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주간 교육하며 매 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과목은 영어반, 시민권 준비반, 사군자 서예반, 라인댄스, 한국무용, 영아노래, 풍선아트, 손뜨개 등이다. 등록금은 100달러(점심 제공). 센터빌은 9월 8일 개강, 12월 80일까지 14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한다. 장소는 평택유 카미유르 호텔 3층, 라인댄스, 한국무용반 수업이 진행된다. 등록금은 60달러. >문의: 703-354-6345